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12~2016.10.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참선이란무엇인가	진제대선사	매일경제신문사
4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서광	모과나무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불교방송	비단길
7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현응	불광출판사
8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만공	비움과소통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10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강병균	살림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너무 사소해 묻기 망설여 지세요?



불교에 관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 49

장웅연 지음
니나캄 그림
담앤북스 펴냄
1만 3천원

"부처님은 원래부터 곱슬 머리였나?" "사리는 왜 생기나?" "49재는 정말 49일간 지내나?"

절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디다 대놓고 묻기는 애매한 것들이다. 절에서 만난 스님들에게 묻자니 왠지 실례인 것 같다. 너무 시시콜콜해서, 너무 무식해 보일까봐 망설여진다. 절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글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불교신문〉 기자로 일하는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불교와 가깝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궁금증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다. 책 제목대로 어디다 대놓고 묻기 애매한 물음 49가지를 가려 뽑고 답을 달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각종 경전과 불서를 참고했고 인터넷도 수없이 검색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인맥들에게 전화도 숱하게 돌렸다"고 지난 과정을 술회 한다. 저자의 이 부지런함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입문서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저자는 사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 조사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1995년 인하대 연구팀이 사리 성분을 조사했고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전체적으로 뼈와 유사하지만 프로트악티늄과 리튬, 티타늄 등의 광물질이 섞여 있었다. 아울러 사리의 위상을 애써 폄하하려는 쪽에서 주장하는 '담석'이나 '결석'과는 형질이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 무엇보다 경도가 압권이었다. 사리는 1만5,000파운드의 압력서 부서졌다. 1만2,000파운드에서 부서지는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오랜 금욕 생활로 정액이 축적된 것이라는 키득거림은 사실무근이다."이라고 밝힌다.

불교에 관한 49가지 문답으로 구성된 이 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불교에 대한 일상적이고 사소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이 책은 교과서처럼 불교에 대해 시간 순이나 주제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불교에 관해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의문에 주목한다. '절은 왜 산속에 많지?' 같은 난이도 하급 물음은 물론 '스님들이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나?' 하는 다소 엉뚱한 궁금증도 친절히 풀어준다. '무아(無我)라면서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가?' 같은 상급 의문도 다룬다. 불자든 아니든, 절에 갔다가 혹은 책이나 TV를 보면서 느낀 불교에 관한 다양한 물음과 답을 비빔밥처럼 잘 버무렸다. 불자들에게는 자신의 종교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불교를 통해 전해진 우리 역사와 문화의 면면을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생생한 육성을 전한다. 맛깔스런 답변을 내놓기 위해 저자는 때로는 경전에 근거하고 때로는 불교 전문가들의 육성을 그대로 전한다. 현직 기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 '어떤 스님을 큰스님이라고 부르나?'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진짜 큰스님'께 묻는 식이다. 진짜 큰스님인 경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전했다.

"내가 입산할 즈음에도 큰스님이란 표현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쓰였다. 아마도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많은 어휘의 한글화가 진행되면서 백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정착됐을 것." 스님의 설명에 저자가 참기름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다. '고승대덕(高僧大德)과 같은 딱딱한 한자어가 정다운 우리말로 거듭났으리란 이야기'라는.

공(空)이나 무아(無我), 중도(中道) 같은 불교사상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나 냉소도 쉬운 설명으로 불식한다.

불교에 관한 49가지 문답 자세히 기술
저자, 경전과 인맥동원 발품팔아 정리

"중도의 삶이란 사물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삶이며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삶이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원리에 충실한 삶이다. 모든 것은 변화함을 알기에, 과거를 못내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지레 걱정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또한 독립된 내가 없음을 알기에, '나'를 고집하지 않는 일이다. (중략) 성철 스님의 제자인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중도를 통찰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됐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확신을 갖게 됐고, 자주적인 사람이 됐고, 소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 부처인 만큼 남도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성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진정한 배려심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짧지만 알차고 재미나 술술 읽힌다. 질문 하나당 짧게는 3~4페이지, 길어야 6페이지에 불과해 읽기 쉽다. 짧은 내용이지만 역사와 경전에 기반한 사실과 저자를 비롯한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의견이 적절히 어우러져 읽는 재미가 있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니나캄의 밝고 경쾌한 그림도 고명처럼 중간중간 담겨 있어서 보는 즐거움도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사들 나눈 문답 기록… 논리적 문답 위주 해설

조당집 읽기

정영식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일화들을 생생히 보여주는, 세계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 책이다. 이 것은 〈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이나 어구는 물론이고, 여타의 선종어록과 등사 등을 참고해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그들이 남긴 일화나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조사들이 당우(堂宇)서 나눈 문답을 기록한 책'이란 뜻의 〈조당집〉은 중국 오대(五代)의 952년에 정(靜)과 균(筠) 두 승려가 쓴 책이다. 그러나 이후 중국 역사서 감쪽같이 자취가 사라져버려 남아 있는 책도 없고, 읽힌 흔적도 없었다. 이처럼 역사서 잊혀진 〈조당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인사에서였다. 일제식민시대에 고려대장경 경판을 조사하던 중에 〈조당집〉 경판이 발견돼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조당집〉은 공개되자마자 세계 불교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900년에 발견된 중국의 돈황문헌에 비견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회자된다.

왜냐하면 〈조당집〉은 세계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종래 잘 알려지지 않던 당나라 시대의 선을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 성격을 띤 〈조당집〉 해설서인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당집〉에 입전된 조사 253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었다(과거칠불과 서천 28조는 제외). 〈조당집〉에 입전된 조사들의 표제어는 통일돼 있지 않다. 주로 주석한 산명(山名)이나 당호(堂號)를 표제어로 사용하기는 하나, 때로는 시호(諡號)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운문문언(雲門文偃)의 경우는 '운문 화상'이라고 표기하는데 운문은 주석산명인 운문산을 가리킨다. 반면에 월산사내의 경우에는 시호를 써서 '월산감진 대사'라 표현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우선 입전된 선사들이 누구인가를 밝혀냈다. 그리고 〈선학사전(禪學辭典)〉과 일본의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 및 중국서 간행된 〈조당집〉을 참고해 각 선사들의 간단한 전기를 작성했다.

둘째, 〈조당집〉에 나오는 중요한 선사들과 그들이 남긴 선문답에 대해서 해설을 붙였다. 그 경우 선사의 전체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각 선사가 중국 선종사서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술했다. 예를 들어 권1과 권2의 전반부서 다루는 과거칠불과 서천 28조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과거칠불과 서천 28조설이 선종사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육조혜능의 경우는 혜능상(慧能像)의 변천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 등 〈조당집〉에 나오는 기록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벽암록〉 등을 인용해 설명한다.

반면에 정작 〈조당집〉에 나오는 중요한 문답이나 어구에 대한 설명이 빠졌을 수도 있다. 그것은 선문답의 의미는 다의적인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독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문답만을 해석하려 했다.

이 책은 〈조당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에게, 또한 〈조당집〉 전체를 숙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좋은 날과 나쁜 날, 판단은 스스로의 마음가짐

온화하게 심플하게

마스노 슌묘 지음/민경욱 옮김
21세기 북스 펴냄/1만 4천원



매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강한 날도 있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즐겁고 좋은 날이 있는 한편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날도 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움에 휩싸인 하루도, 괴로움이 찾아온 하루도 인생 전체서 보면 똑같은 하루일 뿐. 어제와 오늘을 비교한들 의미가 없다. 그날의 희로애락에 휩쓸리지 않고 하루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매일이 좋은 날'을 만든다.

비가 오는 날에야말로 맑은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앞을 보고 걷는 것, 바로 매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로 만드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토록 소중한 매일을 정중하게 맞기 위해, 당신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선(禪)의 문장들이 있다.

선의 문장들은 명확하게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을 아는 경우도 있는 반면 여러 승려의 입을 통해 내려오는 것도 있다. 때로는 시대 변화와 함께 그 해석이 조금씩 변한 것도 있다. 문장의 깊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다.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서 또 세대와 종교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마스노 슌묘. 그는 심플한 생활방식,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일을 대하는 법, 자신을 높이는 지혜 등의 주제에 따라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침이 될 51가지 선의 말씀을 골랐다. 문득 만나게 된 하나의 문장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감정에 지배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생마저 바꿀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좀처럼 와 닿지 않던 말이 지금은 마음에 스민다거나 혹은 깊은 슬픔을 경험함으로써 하나의 말이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옆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말이라도 내게는 보석처럼 빛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받아들이는 사람에 달려 있다.

저자는 선의 문장을 통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당부한다. 이 책은 하루하루 너무 많은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가장 솔직한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한다. **김주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인하대 사학과 불교사학 박사

화엄경6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고,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을 완역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법성게 3개국어판

신간!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 031-534-3373